

다산포럼

‘야만 일본’과 이웃으로 살아가기 -박경리와 시바 료타로



김충식  
가천대학교 부총장

일본의 총리가 바뀌었으니, 스가 요시히데 정권에 의해 한일관계가 좀 달라질까? 크게 기대하는 사람은 없는 분위기이다. 아베 정권의 계승자이니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아베 시대에 한일 간의 반목과 갈등에는 중국의 굴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북한의 핵무기, 두 정상 간의 불신, 위안부 문제, 징용공 판결 등 여러 원인이 있다.

거기에는 필자는, 도덕적 원리와 보편성에 눈감아 버리는 일본, 그런 일본적 편의주의와 만풍(蠻風)을 혐오하는 한국인의 충돌이 근원에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인은 싸움을 좋아하면서도 안전하고, 한국주의적이면서도 탐미적이고, 불순하면서도 예의 바르고, 유순하면서도 시달림을 받으면 분개하고, 용감하면서도 겁쟁이고, 보수적이면서도

새로운 것을 즐겨 받아들인다.” 미군의 일본 분석기였던 루스 베네딕트 여사가 ‘국화와 칼’에서 그린 일본인이다. 왜 그처럼 모순적이고 어지러운가?

차가 박경리는 그런 일본의 정신적 뿌리를 야만으로 보고, 답을 찾았다. “일본의 역사는 칼의 역사일 뿐이고, 본질은 뱀속 깊이 야만이다. 원리적 인식이나 이론적 인식이 지독하게 빈곤하다. ‘일본 서기’에 나오는 신화를 보아도, 처음부터 ‘정벌과 죽음’ 뿐이다. 한마디로 야만스러운 문화이다.” 그는 생전에, 도올 김용옥과의 대담에서 말했다. “일본인에게는 보편적인 가치나 사상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문명’이 지향해 온 모든 것이, 인류를 위해 매우 불행한 것일 수 있다”라고 걱정했다.

나는 박경리의 ‘야만’론에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전에 일본의 우파 문화로 꼽히는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가 일본의 야만을 실화한 글을 읽었기 때문이다. 작가적 통찰력은 이렇듯 통한다. 말인가! “일본은 본래 힘에 의한 경쟁 사회다. 중국·한국 같은 유교의 문명 원리에서 보면 일본 사회는 그저 야만(野蠻)일 뿐이다. 왜(倭)의 만풍(蠻風)이란 어디까지나 늑담함이며, 무

사들은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렸다.” “유교(儒敎)란 인간을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융어매어서 야만적 성격(蠻性)을 뽑아 버림으로써 통치하기 쉽게 한다는 원리다. 이것을 문명이라고 해도 좋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원리 원칙 없이 임시변통을 하는 왜(倭)는, 문화는 일으키되 문명과는 거리가 멀다.”(길을 가다, 1972 아사히신문 출판)

또한 ‘힘이 정의다’라고 외치는 무사 사회 일본을 이렇게 설명한다. “무사의 발흥(勃興)이라는, 일본 역사상 최대의 토착 집단의 출현이 바로, ‘중국에서 7세기에 수입했으나 일본에 안 맞는’ 바보스러운 율령(律令) 체제를 썩뜩썩뜩 난도질하여 1192년,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는 토착 세력의 이익을 대표하는 체제가 성립, 일본 역사는 아시아적인 것에서 해방되었다.”

시바는 일본이 유교 원리 대신에 무사의 늑담함과 이익(利)을 닦고, 용맹(勇)을 겨루며 미(美)를 추구하는 무사도로, 비경쟁사회인 중국·한국과 달리 일본은 경쟁사회로 치달았고, 근대화에 성공했다고 자찬한다. 그는 아시아가 일본을 공해(公害) 같은 존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나라의 문명의 눈으로 보면, 일본

사회는 예이다. 그쪽의 눈으로 보면, 문명의 개념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이 일본이 아닐까? 기저귀 한 장 달랑 차고 큰 칼 휘두르는 왜인(倭人), ‘당치 않은 놈들’ 일 뿐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사회의 고정을 바라는 아시아 여러 민족에게겐 실로 그 자체가 아시아적 공해(公害) 같은 존재이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일본 도쿄에 돌아다니는 우익들의 가두선전자(街頭宣傳車)와 같은 가담장은 우월감, 이웃 나라에 대한 혐오 발언(hate speech)을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일본이, 독일처럼 흔쾌하게 과거사에 사죄하지 않는 이유도 알게 되는 것만 같다. 1940년경 미국과 전쟁을 벌이면서 미츠크영(米寇砲英)을 외치다가, 패전하자마자 ‘기브 미 쇼코렛!’을 애소(哀訴)했던 일본의 자화상, 미국 추종 외교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우리는 이런 나라와 연년세세 살아가야 한다. 이사 갈 처지도 못 된다. 그러면 이런 정신적 야만의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슬기로운가?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의 버드장마리를 고치겠다’고 벌렸지만, 실패로 끝났다. 오자와 이치로라는 정치인이 일본을 정신지체가 모인 ‘특수학급’에 빚낸 것을 기억한다.

社說

삼성 산업재해 은폐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보고 의무를 열 차례 이상 위반하며 사고를 누락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노동 당국에 포착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엇그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노동자가 다쳤는데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열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씨는 2015년 2월 세탁기 실험실에서 자재를 옮기던 중 작업장 바닥으로 떨어져 허리를 다쳤고, B씨는 2017년 11월 냉장고를 전동차에 옮기다 역시 허리를 다쳤다. 이들은 사고로 인해서 사를 이상 일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고 의무’가 있다는 게 이 의원들의 지적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감독기관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출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개인 연차·근속 휴가를 사용했고 치료비도 사비로 부

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공공노동청은 지난 8월부터 조사를 벌여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회사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임순순 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은폐 가능성이 있다. 사측의 (산재) 신청 방해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산업재해로 보이는 37건의 사고도 확인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산재 사고에 대한 보고 누락이 빈번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인 삼성 측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은 지난 5월 ‘무노조 경영 원칙 폐기’를 선언하고 노동 3권 보장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 말이 허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답게 노사 관계 법령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노동청도 사측의 산재 신청 방해나 은폐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유사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육참총장의 첫 사죄 5·18 진상규명 계기로

우리 군(軍)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표 등에 대해 공식 사죄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최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1980년 5·18에 광주민주화운동에 군이 개입한 건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5·18 당시 군이 민주주의를 위하는 수많은 광주 시민을 향해 총칼을 휘두르는 만행이 있었지만 40년간 역대 육군총장 누구도 사죄하거나 무릎을 꿇은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총장은 “희생자들의 뜻은 민주화 운동이고,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목 보단 화해와 용서가 중요하고, 오늘 저

는 진심으로 사죄를 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남 총장은 발언 후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사죄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남 총장의 사죄에 대해 5·18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지만 육군의 최고 책임자가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40년 만에 처음 이뤄진 육참총장의 사죄가 이제 5·18 진상 규명의 촉진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당시 군 관련자들의 참회와 고백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NGO 칼럼

한빛 3호기 재가동을 반대하는 이유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업국장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지역의 한빛 3·4호기 부실 시공과 안전성 부분이 올해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갑에서 이용빈 의원(광산 갑)은 “한빛원전 3·4호기 민간 합동조사단이 격납 건물 벽체 내부 균열 문제를 지적했지만, 원인 위는 콘크리트 균열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건전성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정비 계획까지 승인했다며, 정비 계획을 멈추고 격납 건물 내부 균열부터 정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 사안이지만, 문제는 여전히다. 올해는 한빛 3호기 재가동 문제가 지역 사회에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빛 3·4호기는 수년째 가동이 중지된 상황이다. 현재까지 한빛 3호기의 콘크

리트 격납 건물에서 발견된 공극(구멍)은 124개로, 한빛 4호기의 140개를 합하면 한국의 전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0% 이상이 한빛 3·4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첩판 기준 두께 미달은 263개소, 윤활유인 그리스(grease) 누유는 29개소, 철근 노출은 184개소에 달한다. 특히 격납 건물의 구조적 결함에 치명적인 그리스 누유와 철근 노출은 한빛 3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3호기 격납 건물 구조 건전성 평가 검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한수원의 건전성 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었고 모든 평가 결과가 격납 건물의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는 3호기에서 발견된 124개 공극을 보수하고 10월 중 재가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빛 3호기의 구조 건전성 평가는 검증 주제와 평가 기준에서부터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애초에 격납 건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평가였다.

한수원이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수행

한 구조 건전성 평가는 격납 건물의 구조 건전성에 있어 공극보다 더 중요한 평가 요소인 균열에 대한 평가가 빠져 있다. 현재까지 한빛 3·4호기에서 발견된 그리스 누유는 29개소로 다른 핵발전소 그리스 누유는 29개소로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리스 누유는 격납 건물의 균열 가능성을 의미한다. 격납 건물의 균열은 폐로를 해야 할 만큼 핵발전소 안전에 위협적인 결함이다.

격납 건물의 내부 1m 안의 공극과 균열을 파악하지 못한 구조 건전성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고작 격납 건물 외부 20cm 범위 이내에서만 확인되고 보수된 공극만으로 격납 건물 전체의 구조 건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리고 사용 전 검사, 사후 조사 결과, 시공 자료, 불일치 사항 보고서, 감리 보고서 검토 등 공극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조사가 결여되어 있다. 첩판 부식의 진행성 여부에 대한 평가 등은 격납 건물 생애주기 기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향후 진행될 격납 건물의 내구성 변화에 대해 판단할 근거 또한 없다.

격납 건물은 지진과 테러 같은 외부 충

격이나 핵발전소 사고시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할 최후의 방어벽이다. 위험천만 한 최후의 방어벽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다. 근본적으로 공극과 균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한다 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는 한빛 3호기는 부실 시공을 인정하고, 폐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 기업 도시바에서 20여 년간 원자로 격납 건물 안전 설계를 연구한 고토 마사시 씨는 “격납 건물 100% 보수는 불가능하다”며 “이 정도로 공극 문제가 심각한 원전의 재가동 논의는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지난 3년 가까이 한빛 3호기 가동 없이도 전력 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한빛 3·4호기가 가동 중단된 현재 전력 예비율은 25% 남짓이고, 30%를 넘는 경우도 많았다. 즉 탈갈고 말 많은 한빛 3호기를 서둘러 무리하게 가동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지금은 무리한 가동보다 한빛 3호기에 대한 근본적인 진상 조사와 정밀 조사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기고

뉴 노멀 시대의 아시아 문화포럼



황병하  
아시아문화포럼 자문위원·조선대 교수

오늘 국립 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문화포럼은 벌써 14 회째를 맞이하였다. 2006년 ‘문화와 기술’을 주제로 처음 시작한 포럼은 지난 14년 동안 찰스 랜드리 등 세계적 석학과 국내외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문화예술에 대한 미래 담론을 형성해왔다. 지금까지 논의의 핵심 키워드는 아시아, 문화, 기술, 창의성, 문화 콘텐츠, 문화 융성, 창조산업 등이었다. 2001년에는 4차 산업혁명과 문화도시라는 키워드도 제시되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2017년과 2020년의 차이점은 코로나19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포럼이 광주와 아시아 문화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제시하고 문화예술 전문가의 상호 소통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으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아시아 문화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의 공동 개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부로부터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광주시가 단독으로 개최할 적도 있다. 광주시가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던 시기에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한편 포럼을 주관한 단체들은 매우 다양했다. 여기에는 아시아문화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광주문화재단, 전남대 산학협력단, 광주국제교류센터, 아시아문화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 등이 포함되었다. 주관 단체들이 2년 또는 3년 주기로 바뀌면서 포럼의 연속성과 지속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양한 운영 방식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던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주관 단체의 잦은 변경으로 담론 형성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단절되고 네트워크 협력 체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2020 아시아 문화포럼’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와 단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청년 문화예술가들의 참여 기회를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untact)와 온택트(ontact) 환경에 대비하고 뉴 노멀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와 사고의 전환 방안을 주제로 제시하였다.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문명의 전환 - 뉴노멀 시대, 문화연대의 가능성’을 주제로 설정하고,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인류세, 위험 사회, 헤게모니를 제시하였다. 또한 세계적 석학인 노암 촘스키 교수와 국내 전문가인 홍기빈 대표, 그리고 지역 내 문화예술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지역 문화예술 단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2014년 포럼에서 런던 테이트 모던 교 육국장은 “왜 포럼에 젊은 청년들이 보이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매우 충격적인 비판이었다. 이후 포럼은 청년 예비 전문가들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에는 아시아 청년문화축전, 청년 캠프, 서포터즈, 미디어랩 시범 운영 등이 포함된다. 이런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주관한 광주문화재단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은 청년 지역 문화 워크

숍 프로그램을 탄생시켰다. 향후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며, 청년 캠프의 부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뉴 노멀 시대 문화예술의 주역은 스마트 세대일 수밖에 없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는 경제와 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뉴 노멀 시대의 변화 요구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고의 전환 요구에 직면해있다. 이런 위기 상황을 새로운 변화와 전환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단체들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의 활용,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한 시스템의 정비, 거버넌스 소통 강화, 일반 대중과 청년층의 적극적 참여 유도 등의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아시아 문화포럼은 이런 변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고로의 전환과 뉴 노멀 시대에 대비한 최적화 방안을 위한 전환점에서 있다.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광주문화재단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이 있다.

無等鼓

이번 작가 미우라 시온의 소설 ‘배를 띄운다’는 한 편의 사전을 만들기 위해 15년간 열정을 쏟은 편집자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행복한 사전’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다.

“사람은 사전이라는 배를 타고 어두운 바다 위에 떠오르는 작은 빛을 모으기. 더 어울리는 말로 누군가에게 정확히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편집자 아라키는 ‘사전은 말의 바다를 건너는 배’라고 말한다. 아라키를 비롯한 여러 편집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단어 용례 채집 카드를 하나 하나 작성하고 ‘날마다 변화하면서 흐른들리지 않는 말의 근본 의미’를 고민하며 우직하게 사전을 만든다.

요즘은 종이 사전 대신 포털사이트 전자사전을 이용하는 추세다.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어디서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어를 입력해 간단하게 국어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를 검색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간혹 한글로 표기된 한자식 용어를 읽다 보면 원래의 뜻과는 달리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사각장애

인을 위한 촉지형 안내판’ 같은 경우를 보자. ‘촉지’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는 닿을 ‘촉(觸) 자와 손가락 ‘지(指) 자’가 아닌가 짐작했었다. 한데 막상 검색해 보니 ‘촉각으로 인지한다’(しょくち, 触知)는 의미의 일본말이었다. 우리말 대신 ‘굴이 의미가 잘 통하지도 않는 한자로 표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 ‘새말 모임’에서 최근 IT(정보통신) 관련 신조어를 대신하는 우리말 대체어를 선정했다. ‘로컬택트’(Local tact)는 ‘지역 유틸리티 활동’으로, ‘스마트 폴’(Smart Pole)은 ‘자능형 기둥’으로, ‘버블 뱀’(Bubble Man)은 ‘주제 그물’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시대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말 또한 끊임없이 변한다. 그동안 사용해 오던 단어가 사라지고 새로 등장한 단어가 생명력을 얻곤 한다. 그러나 ‘변해 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말의 근본 원칙은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촉지’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우리말은 무엇일까?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우리말 대체어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지)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남본부 220-0642	대표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FAX 222-0195) FAX 222-0195) FAX 222-0195) FAX 02-773-9331 FAX 02-773-9335)	무궁화대로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